



룩소르 신전 · 사진: Vyacheslav Argenberg / Wikimedia Commons, CC BY 4.0

신왕국 시대

룩소르 신전

왕의 대관식과 권력 갱신의 신전

왜 중요한가

원래 아멘호테프 3세가 왕의 신성한 권력 갱신을 위한 신전으로 건설했으며, 이후 투탕카멘과 호렘heb가 일부를 추가했고, 이후 람세스 2세가 거대한 입구 탐문과 자신의 거대한 좌상, 그리고 자신만의 안뜰을 더했습니다. 프톨레마이오스 및 로마 시대에는 신전의 일부가 로마 군사 기지로 사용되었으며, 파라오의 신성한 계승자로 여겨진 알렉산더 대왕을 위한 신당이 홀 중 하나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. 이후 신전의 일부는 콥트 교회로, 그 위에는 오늘날까지 서 있는 아부 알-하가그 모스크로 개조되어, 네 개의 서로 다른 종교에 걸쳐 신성한 용도로 계속 사용된 드문 증거가 되었습니다. 한때 입구 양쪽에 서 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1830년 프랑스에 선물로 주어졌으며, 오늘날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 서 있습니다.

2.7 km

카르나크까지 이어진 �핑크스 길

1830

쌍둥이 오벨리스크가 파리로

4

개 종교가 예배한 장소

2021

스핑크스 길 재개방

방문 준비

운영 시간

매일 06:00 - 21:00
(저녁 시간은 바뀔 수 있음)

입장권

외국인 성인 500 이집트파운드
학생 250 이집트파운드 (유효한 학생증)

사진

휴대폰 촬영 무료

소요 시간

1-1.5시간

추천 시간

늦은 오후부터 해 질 녘, 조명이 켜질 때

위치

동안, 시내 중심 코니시 거리

요금과 운영 시간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. 매표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 대부분의 매표소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.



이 순서로 둘러보세요

룩소르 신전 관람 동선

더 큰 이야기

룩소르 신전은 단순한 일상 예배 장소가 아니라, 연례 오페트 축제 의식을 통해 파라오가 대관식을 치르고 신성한 통치권을 갱신하던 곳이었습니다. 카르나크 신전과는 약 3킬로미터에 이르는 유명한 �핑크스 대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, 이 대로는 수십 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2021년 일반에 완전히 재개방되어, 오늘날 방문객들이 수천 년 전 파라오 행렬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1 �핑크스 길

이 신전과 카르나크를 잇던 행렬의 길로, 사람 머리 �핑크스가 늘어서 있습니다.

3 람세스 2세 정원

위를 보세요. 아부 엘하가그 모스크가 옛 정원 위에 서 있고, 문은 고대 바닥보다 훨씬 높이 있습니다.

5 아멘호테프 3세 태양 정원

우아한 기둥의 숲. 1989년 이 바닥 아래에서 묻혀 있던 조각상 무더기가 발견되었습니다.

2 제1탑문과 오벨리스크

람세스 2세의 거대한 문, 앉아 있는 거상들, 그리고 쌍둥이가 지금 파리에 있는 오벨리스크.

4 아멘호테프 3세 열주랑

거대한 파피루스 기둥 14개. 벽에는 투탕카멘 시대에 새긴 오페트 축제 행렬이 있습니다.

6 로마 방과 알렉산드로스 성소

파라오 부조 위에 그린 로마 벽화,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파라오로 표현된 성소.

알아두면 좋은 점

- 가능하다면 밤에 방문하세요 — 야간 조명이 비추는 신전의 조각과 기둥은 낮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, 방문 시 복원된 �핑크스 대로가 개방되어 있다면 그 길을 따라 걸어볼 시간을 가져보세요.
- 정원 위의 아부 엘하가그 모스크를 찾아보세요. 700년 넘게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.
- 시내 한가운데라 코니시에서 걸어가거나 마차로 갈 수 있습니다.



전체 이야기 듣기

스캔하면 Luxor Guide 오디오

투어 — 11개 언어, 오프라인 지원

현지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세요

원하는 언어의 전문 이집트학 가이드, 기사 포함 차량, 그리고 열기구·펠루카·나일 크루즈까지. 메시지 주시면 빠르게 답해 드립니다.

WhatsApp +20 100 050 6066

info@luxor-guide.com

출처: Luxor Guide 해설 원고 — 룩소르 신전; 이집트 관광유물부 입장료 정보 (2026);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—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 (1979). 사진: Vyacheslav Argenberg, CC BY 4.0, via Wikimedia Commons.